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라카타시 시장의 후시미 다카시입니다.

2021 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감염 확대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 국가에서는 1 월 7 일 수도권에 대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습니다.

또 오사카부를 비롯하여 긴키의 각 부현에서도 감염자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중 오사카부 지사는 나라에 대해 긴급사태 선언의 요청을 실시하는 것을 표명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올해에 들어오면서 감염자가 1 일에 30 명 전후의 날이 연속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1 월 8 일에 대책 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하를 결정했습니다.

우선 1 월 11 일까지였던 시 소관 시설의 이용이나 시 주최 이벤트의 중지 또는 연기로 하는 조치를 재차 연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1 월 31 일까지로 합니다만 오사카부에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경우는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 1 월 11 일에 개최를 예정하고 있었던 성인식 “스무살의 모임” 에 대해서도 연기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새 성인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스무살의 모임” 은 저도 어떻게든 개최하고 싶다고 생각해 식전의 시간 단축이나 출석자의 제한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감염 방지 대책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진행시켜 온 곳입니다만 이런 가혹한 상황 속에 괴로운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전의 연기라는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새 성인이나 보호자 많은 관계자에게  
대한 폐나 부담을 걸게 되어 매우 마음이 괴롭게 생각합니다만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감염 확대에 대응을 강화한 다음 3월  
말까지는 설치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대단한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만 지금이 최대의  
중대 국면입니다. 힘을 합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 갑시다.

레이와 3년 1월 8일

히라카타시 시장 후시미 다카시